

정령Letter

VOL.
05

2022. Nov

법무부 청렴알림 e

WWW.MOJ.GO.KR

MINISTRY OF JUSTICE

NEWS LETTER



청렴은 **컨택트!**
contact
부패는 **언택트!**
untact

✓ Issue 1

2022년 하반기 본부·소속기관 청렴 활동
2022년 법무부 청렴라이브, 청렴워크숍
서울소년원, 부산구치소, 안동교도소 청렴활동 소개

✓ Issue 2

청렴 탐방
청렴 MBTI 탐방
해외국가의 청렴 정책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김안식 청렴시민감사관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전 안양교도소장

“교수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교정학 수업시간에 범죄자 교정교화에 대해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로부터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교도관으로 30년간 근무하고 대학에서 가르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교정시설에서 높은 담, 둘러친 펜스와 철격자 등을 마주하면서 근무하다가 곱게 가꾼 나무와 꽃들, 멋진 건물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교정에서 생활하게 되니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가고 열심히 노력해도 교정학과 교도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제가 호사를 누린다는 미안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 전 교정직시험을 준비했을 때에도 교정에 대한 관심이나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교정이 수사, 기소, 재판과 함께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고, 특히 교정학 공부를 하면서 1590년대 근대 교도소의 효시였던 암스테르담 징치장 정문에 “나의 손은 엄하나, 나의 마음은 친절하다.”라는 모토가 붙어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400여년 전의 교정선배들이 엄정한 형벌집행과 함께 친절한 마음으로 범죄자를 교화해야 한다는 교정철학을 가졌다는 것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최근 고위공무원은 물론 사무관까지도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의 역량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평가의 요소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상대방에 대한 경청과 배려가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주교도소장 근무 당시 비교적 수월하게 역량평가를 통과하였는데, 그 비결은 평소 저의 좌우명인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에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서 제가 다녔던 P고등학교의 교훈인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슴 속에 남아서 제가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히 대처하고 행동하는데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도관이 되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나. 공무원은 항상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해. 그런데 그 대상이 ‘국민 전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자도 포함되는거야. 법이 수용자에게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면 수용자도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 마음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교도관 근무 경험이 있는 교정학 교수로서, 또 최근에는 법무부 시민감사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교정행정이, 나아가 법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해보곤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의 불법과 부조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맡든지 상대하는 모든 국민에게 경청과 배려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도록 사고와 분위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토양 위에서 청렴한 법무행정, 신뢰받는 교정행정의 달성이라는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으로 감히 장담해봅니다.

청렴 소식

2022년 법무부 청렴라이브 개최

법무부는 2022년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렴 뮤지컬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 청렴 골든벨 등으로 구성되어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권익위 한상석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법무부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노력과 결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취지와 10대 준수사항을 소개하면서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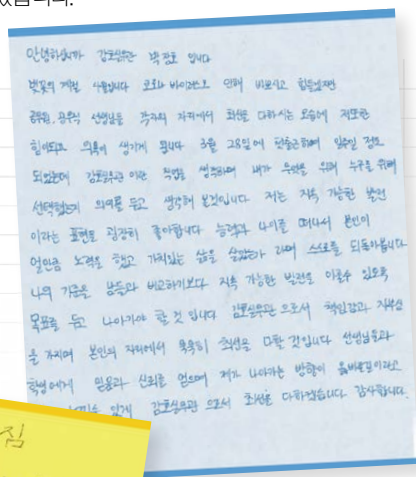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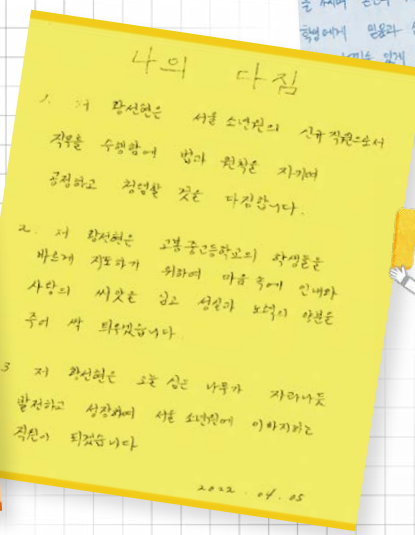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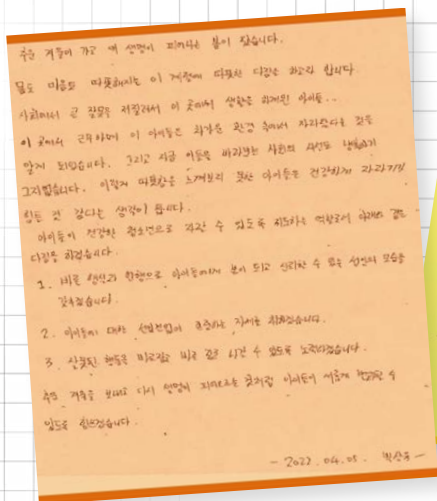
서울소년원 21, 22년 임용자 ‘청렴 나의 다짐’ 작성

서울소년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를 원 내 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2021년 및 2022년 임용된 신규 직원들 10명에게 각 10그루의 유실수를 지정, 함께 성장하는 의미를 담아 식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직원들이 대추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등으로 구성된 유실수 중 자신의 나무 한그루를 선택해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직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각각 나무에 걸고 그 아래 ‘나의 다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으며 조직의 소속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소년원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과장 등이 직장 선배로 함께 나무심기에 참여하여 평소 궁금한 업무 해결방법이 있는지 등의 담소를 나누며 새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후배의 앞날을 축하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중 한 명인 황선현 특수교사는 이날 행사에서 신규자 대표로 ‘나의 다짐’ 글귀를 선후배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황 교사는 “이번 식목일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교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사로서의 마음 속에 인내와 사랑의 씨앗을 심고 성실과 노력의 양분을 주어 소년원 학생들의 싹을 틔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소감으로 화답한 분류보호과 최오수 과장은 선배로서 35년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어린 묘목이 성장하며 더 잘 자라기 위해 안좋은 가지들을 잘라내듯 신규 교사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을 닦아가라며 새내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022년 법무부 청렴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2년 9월 3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임용 3년 이내 MZ세대 공무원, 청렴멤버스 등 135명을 대상으로 2022년 법무부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추진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유지 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팀장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강의와, 미라클에듀 남지운 대표의 '예술과 MZ세대가 만나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양종국 청렴시민감사관의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듣는 청렴마인드 업' 등이 있었습니다. 청렴워크숍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청렴마인드 향상 교육과 스트레스 해소 힐링 교육 등을 들을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워크숍 소감을 전했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산구치소 갑질근절표어 및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부산구치소에서는 전 직원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참여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갑질근절표어 및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갑질근절표어로는 '갑질 말고 갑진 인격존중! 당신의 인격은 "갑"' 등 27건이 출품되었고, 청렴표어는 '부정, 인생의 빛! 청렴, 인생의 빛!' 등 26건이 출품되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였고 이를 부산구치소 내 청렴 계단 등에 전시하였습니다.



안동교도소 청렴문화제 개최

안동교도소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 청렴문화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5일동안 안동교도소 전 직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이해충돌방지법 퀴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그 시행령에 관한 10문제를 출제하였고 최고득점자 순으로 10명을 포상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2일 일주일간 청렴, 음주운전 근절 서약 주간을 운영하여 안동교도소 전 직원은 청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부채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직원에 배포하여 청렴문화를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9일에는 기관장 주관 이해충돌방지법 돌발 쪽지시험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회의, 대면 보고 시 돌발 쪽지 시험이 출제되었고 쪽지 시험에 통과한 직원 중 10명을 추첨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이번 청렴문화제를 통해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림 MBTI 탐방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김기창, 신선영, 한종민

INTJ 맹사성

#이론적#객관적#책임감



일화

좌의정 시절, 맹사성이 고향인 온양에 집안 어른들을 뵈러 올 때였다. 인근 고을 관리들은 맹사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깨끗이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웬 초라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갔고, 관리들은 못마땅해서 노인의 앞을 막았다. 그러자 맹사성은 "온양 가는 땀고불(맹사성의 호)이 소를 타고 간다고 알려라"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맹사성은 정승의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만큼 낡았고, 정승이란 높은 신분에도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INFP 정약용

#이상주의#솔직함#공감능력



일화

관직에 있을 당시 탐관오리들의 비리와 횡포로 백성들의 삶이 점차 피폐해져갔다. 선생은 이를 두고볼 수 없어, 암행어사로 군수들의 비리를 파헤쳐, 세금을 빼돌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가의 곡식을 두고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해 장사를 하는 지방 수령들을 발하였다. 그리고 수원화성을 쌓던 시기, 도르레를 활용한 거중기를 발명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직접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수고를 크게 덜었고, 공사기간 또한 줄이게 되어 각자의 일상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다.

ENTJ 이원익

#지휘력#지적인#계획적인



일화

키가 너무 작아서 '키 작은 재상'으로 불렸던 이원익은 황희, 맹사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청백리로 불린다. 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 온 천하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제사를 보내 조문을 하게 하고, 또 승지를 보내 제사를 올리게 했다. 그런데 승지가 돌아와서는 "그 집을 가서 보니 집은 두어 칸 짜리 피집이었고, 그나마 비바람도 가릴 수 없는 낡은 집이었습니다"고 보고하였다. 인조는 "40여 년 동안 재상을 지내면서 초가삼간도 장만하지 못했더니"라며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보내주었다고 한다.

ENTP 류성룡

#분석적#도창성#자기주관



일화

임진왜란 때 민심을 모으고 나라를 구했던 류성룡은 좌의정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권율과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자고 주장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10년 동안 정승 생활을 했지만 청렴하고 정직하여 언제나 가난했다고 한다. 한 예로, 류성룡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후한(後漢)의 권력자인 동탁(董卓)의 것보다 더 크다고 왕에게 말했으나, 실상으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손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할 정도로 청렴한 태도로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INFJ 정인보

#원칙주의#이상주의#직관력



일화

일제 강점기, 본래 명문가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느라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학문에 정진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다. 정인보 주변에는 일제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으나, 굶하지 않고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였다. 한 일화로, 오랜 벗이 친일 행각을 벌이자, 그의 집으로 상복을 입고 찾아가 통곡하였다고 한다. 그 후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도 냉정하게 쫓아냈다고 한다. 추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감찰위원장의 직위를 맡았으나 자녀의 학비를 내지 못할 만큼 가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많은 권위를 누릴 수 있었으나, 끝까지 청렴한 마음을 지킨 지식인이었다.

INTP 이항복

#즉흥적#분석적#논리적



일화

이항복이 영의적이던 시절, 하루는 퇴결하여 집에 돌아오는데, 지체 높은 영의정 대감의 행차이어서 백성 모두가 길을 비켰다. 하인들 역시 기세 당당하게 "물러서거라"를 외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광주리를 이고 가다가 미처 길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성미가 급했던 하인들은 여인에게 "냉큼 물러서지 못할까?"하며 방망이를 휘둘렀고 이항복은 하인들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엄하게 꾸중을 했다고 한다. "너희가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그 잘못은 내 잘못이 된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백성들 중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제 다 관직에 있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하인들을 타일렀다고 한다.

ENFP 원호대사

#관계중시#감정교류#즐거움추구



일화

원호대사가 활동하였던 신라시대의 불교는 왕족과 귀족들을 위한 종교였다. 글로 쓰인 경전을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원호대사는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는 등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를 백성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느끼도록 노력하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과 함께 복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였다. 이를 통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도 불교의 이치를 알 수 있게끔 노력하였다.

ENFJ 이순신

#리더십#선한의도#조언



일화

유성룡의 《징비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한산도의 운주당에 밤낮으로 기거하며 여러 장수들과 전쟁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하급 군졸이라도 가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군대의 실정을 훤히 알았기 때문에 패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로써 엄격한 신분계급을 구분하던 권위적 문화를 타파하고 수평적 의사소통 구현하였다고 한다.

ISTJ 임익상

#책임감#정직함#제계와전통중시



일화

임익상이 금천태수로 있던 시절, 옹호영(임금 친위대) 장교들이 임금의 위세에 의지해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하자, 크게 노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법도에 따라 처벌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은 오히려 임익상에게 벼슬을 내리고 그의 어진 성품을 칭찬하였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고 꾸짖는 공정한 태도로 주위에서는 그를 '청서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ISFJ 율곡 이이

#헌신적#배려#검소



일화

율곡은 선조4년(1571)에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그해 가을에 서원향약을 만들었다. 서원향약은 양반과 천민을 구별하지 않고 청주지방의 전체 백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 형식을 빌려 도계장, 계장, 동훈회, 색장 등의 임원을 두고 권선징악의 세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한 제도이다. 율곡은 건강문제로 이듬해 청주목사를 사임하고 해주로 낙향하여 서원향약은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조선 후기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향약의 모태가 되었다(향약이란 전통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악을 경계하는 등 오늘날 지방자치의 기초)

ESTJ 김만덕

#이타적#정직함#지도력



일화

조선 정조시대, 제주도에서 살았던 김만덕은 객주를 열었고 정직한 자세로 유통업에 종사하여 전국에 이름이 퍼질 정도로 거상이 되었다. 한편, 태풍이 제주도를 휩쓸어 추수를 앞둔 제주도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조정에서 보낸 식량도 풍랑에 침몰하여 제주도 전 지역에 굶어 죽는 자가 출비하였다고 한다. 이때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 500섬을 구입하여 제주도민을 살렸다.

ESFJ 황희

#솔직함#배려심#사교적



일화

호탕하면서도 관대하고 신중한 황희는 비가 새는 초가에서 살고 누더기 이불을 덮고 살 정도로 청렴하였다고 한다. 영의정 자리에 약 20년 가까이 있었던 황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불도 없이 명석에 누워만 있어, 병문안을 왔던 왕이 놀랐다는 일화가 있다. 청렴했던 황희는 농민들이 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농사법을 개량했고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을 아껴서 노비 제도도 정비하였다.

ISTP 이악동

#상황판단력#과묵함#합리적



일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조참판·전라도관찰사·이조참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높은 관직까지 올랐음에도 만년에 끼니를 걱정할만큼 가난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렴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당시, 그는 부정부패를 단속, 근절시키고 조정에 바치는 공물의 수량과 세공을 감면해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후 서울로 돌아올 때, 제주목사 재임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두 관아에 두고 떠났다고 한다. 그러다 손에 든 채찍이 제주 관아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 채찍을 즉시 성루에 걸어놓고 갔다고 한다. 이를 후임자들이 회수하지 않고 모범으로 삼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채찍이 썩어 없어지자 백성들이 바위에 채찍 모양으로 새겨두고 기념하였다고 한다.

ISFP 유관

#호기심#화합중시#용통성



일화

조선시대 우의정을 지낸 유관은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도 평생을 비단옷이 아닌 초가집에서 배옷만을 입고 살았다고 한다. 그는 집에서 비가 새면 우산을 쓰고 지내며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하였다고 한다. 유관은 20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모나지 않은 동글동글한 성격과 공정한 처사로 동료 관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사망하자, 세종대왕은 연회자리를 즉시 파하고 몸소 흰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백관들을 거느리고 유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ESTP 임상옥

#도전적#열정적#주도적



일화

조선시대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의 인삼을 헐값에 사기 위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고, 조선 상단이 굴복하게 된다. 그러자 임상옥이 인삼을 모두 구입하고, 헐값에 팔지 않겠다고 하며 인삼을 모두 불태워버린다. 결국 중국 상인들이 불매운동을 취소하고, 본래보다 인삼을 비싸게 구입하여 임상옥은 막대한 재화를 벌어들인다. 그리고 이를 본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사후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청렴한 삶을 살았다.

ESFP 최영

#낙천적#자율성#행동력



일화

고려 말 장군으로 고려왕조와 운명을 같이 한 충신이다. '황금 보기를 둘 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원칙으로 삼아 사리사욕 없이 난세 속에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킨 위인이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을 때, 최영이 '권세를 탐한 죄'가 있다며 처형을 하려고 했다. 이에 최영은 평생에 탐욕이 있었다면 자신의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며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 후 실제로 최영의 무덤에는 오랜 세월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 최영은 청렴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이 글귀를 곁에 두고 항상 되새겼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고위관직에 있을 때도 별다른 청탁이나 뇌물 사건에 휩쓸리지 않았다.

해외 국가의 청렴 정책

대전소년원 보호서기보
정옥기



스웨덴 : 옴부즈맨 제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를 보면 북유럽 국가가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의 근간에는 옴부즈맨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해서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다가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돼 현재 80여 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시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충을 처리하는 일반 옴부즈맨과 특정 분야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는 특수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설치 형태에 따라 행정부형과 의회형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 구제 제도보다 비용부담이 적고 이용 절차가 간편하고 조사권의 행사와 공표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해줍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만 해도 통화, 문자, 이메일 등을 증거로 기소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공공영역에 있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강력한 제도 운용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 제도는 '모든 것을 공개하라'라는 원칙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의 반부패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비리 민원제거나 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나 기소를 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뉴질랜드 : 중대 부정 사건 수사국, 제로 톨러런스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만큼이나 깨끗하기로 유명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는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거의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받아 상위권에 있습니다.

매년 뉴질랜드가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부패 사건, 규모가 큰 사기 사건 등을 전담하는 중대 부정 사건 수사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 부정 사건 수사국은 중대하고 복합적인 부패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대 부정 사건 수사국은 부패 사건이나 부정한 정치 자금 관련 수사보다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횡령 사건 등은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며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보기도 어려운 실정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나이의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은 뉴질랜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총리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불과 일곱 살짜리 아이도 학교에서 잘못하면 정학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뉴질랜드이고, 공무 중인 총리가 탄 차량도 과속으로 단속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뉴질랜드입니다.

잘못한 행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뉴질랜드에서 보편적인 가치임을 보여주며, 몇몇이 못한 핑계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은 좀처럼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원가를 단속할 때 흔히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라는 말부터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독일 : 반부패법

2010년 51세에 최연소 독일의 10대 대통령에 취임한 크리스티안 볼프는 19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지사 시절 부동산 구매를 위해 기업이 출신의 지인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싼 연리 4%의 조건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청렴 국가'로 소문난 독일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정직과 신뢰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윤리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양한 부패 방지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당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자신의 재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라는 독일 헌법 21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제정한 '반부패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25유로(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선물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공직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부패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반부패 행동 규범'을 숙지 해야 하며 상황별 대처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한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을 선출할 시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인물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차원의 노력입니다. 독일의 많은 대학은 '경제 윤리센터', '윤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미래의 청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세 가지 보물(첫째 부패방지법, 둘째 부패를 고발하는 국민, 셋째 탐오조사국)

싱가포르인들은 청렴의 아이콘 리콴유 초대 총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리 총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아시아에 사회적으로 관행화된 부패도 척결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며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강력히 실행했습니다. 리 총리는 1960년 2월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제정하고 부패 방지 전담 기관 탐오조사국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을 개정해 뇌물뿐만 아니라 사례금, 향응의 요구, 수수 및 제공과 부정행위의 시도와 공모도 실제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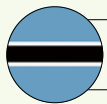
1990년에는 해외 주재 대사와 외교관, 해외 주재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가장 처벌 조항을 추가했으며 1993년 싱가포르 국회는 스스로 국회의원의 뇌물수수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 형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이외 일반인의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7만 달러 이하 벌금으로 뇌물죄를 범한 국회의원의 형사책임이 훨씬 무겁게 여겼으며 지도층 인사에게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과 제도로 싱가포르 국민이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부패고발을 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익명으로 부패 신고도 가능하게 했으며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 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발인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탐관오리 조사국입니다. 탐오조사국은 현대 세계 최초 부패 전담 독립기관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부패 사건에 관련한 부패 전담 기관입니다. 싱가포르 검찰과 경찰은 탐오조사국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칠 정도입니다.

탐오조사국의 3대 직무 철칙은 1. 아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2. 1센트의 부패도 묵과하지 않는다. 3. 가혹하게 처벌한다. 이며 부패 없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청렴성과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선도적 부패 방지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 부패와의 전쟁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에서 유일하게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아프리카 나라가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 27위,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츠와나는 어떻게 '청렴 사회'를 이룩했을까? 그 비결은 정치, 사회, 교육 전 분야를 아우르는 보츠와나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있습니다. 보츠와나 정부는 1994년 '반부패', '청렴 사회'를 국가 지향점으로 내걸고 부패 및 경제범죄법이라는 강력한 반부패법 제정은 물론 부패및경제범죄원(DCEC)을 설립해 부정부패를 전 사회에서 뿌리 뽑고자 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패 관련 범죄만을 전담하는 부패법원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츠와나는 DCEC에 반부패 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도덕 경제 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부패의 정의], [부패가 국가 경제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 [부패 관련 경제범죄를 다루는 법과 제도] 등 부패와 관련된 법·제도, 윤리에 대해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연극으로 연출하거나 실제 자국에서 발생한 부패 사례 등을 찾아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반부패 청소년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교의 동아리는 매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부패 문제에 대한 견해와 지금보다 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조선의 명장,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에 속한 발포라는 곳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좌수사 성 박이 심부름꾼을 보내 왔다.



좌수사의 심부름꾼은 풍류를 즐기고자 거문고를 만든다며 오동나무를 베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벨 수 없다며 심부름꾼을 돌려보내었다.



돌아온 심부름꾼으로부터 말을 전해 들은 좌수사 성 박은 화가 났지만 이순신의 말이 틀린 것이 없기에 어찌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순신의 청렴함과 강직함을 대변한다.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이라는 시련을 감내하고 임진왜란 중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조선을 왜적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한민족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됐다.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심각한 병폐 '면신례'

면신례는 조선시대 신임관료가 치루었던 신고식을 말합니다. 고려시대 때 가문의 후광으로 관직에 진출한 신임 관료들의 '길들이기' 명목으로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글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신임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되며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명백한 악습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와 무관하게 면신례 통과일에 따라 승진순서가 정해지고, 면신례를 거부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애초에 관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임관료들은 면신례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관료들의 신고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임관료가 신임관료에게 받는 공공연한 향응접대가 된 것이지요. 면신례를 하지 않으면 예를 갖추지 않거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직책 대신 '신래(신참)'이라고 부르는 등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294권,

성종 25년(1494) 9월 22일 정미 2번째 기사

도총관(都摠管) 변종인(卞宗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군사(軍士)의 연재(鍊才) 때문에 훈련원(訓練院)에 앉아 있었는데, 본원(本院)의 권지(權知)¹⁾ 등이 신에게, ‘허참례(許參禮)를 행하지 않았다.’ 하고는 지영(祗迎)²⁾ 하지 않고 이름을 들어 욕하였습니다.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비관(卑官)³⁾으로서 재상(宰相)을 욕보임이 옳으냐?”

하고, 권지(權知) 이극달(李克達) 등 14인을 불러 물으니, 모두 대답하기를,

“무과 출신인(武科出身人)은 당상(堂上)·당하(堂下)를 묻지 않고 모두 주호(酒肴)를 판비(辦備)하여 본원(本院)의 남행(南行)과 서로 만나본 연후야(先生案)에 제명(題名)하고, 선생(先生)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당상(堂上)이라도 지영(祗迎)하지 않고, 신래(新來)의 이름을 부르니, 이것은 옛 풍습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변종인(卞宗仁)은 일찍이 참판(參判)을 지냈으니, 바로 지위(地位)가 높은 재상(宰相)이다. 권지(權知) 등이 신래(新來)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비록 옛 풍습이라고 하나 혁파(革罷)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도총관은 조선전기 군사제도인 오위를 총괄하는 오위도총부의 최고 책임자로 정2품 관직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재상이 허참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종의 관청 수습직원이 도총관의 이름만 부르거나 관직 대신 '신래(신참)'으로만 부르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에 대해 왕이 질문하여도 허참례를 해야 상관으로 대접하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왕은 이는 옳지 않은 행동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신례의 과정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또는 새로 부임하여 벼슬을 받을 때는 신임 관리가 기존의 관료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허참례(許參禮, 집단에 참여를 허락한다)’라고 합니다. 이 때에는 거한 술상을 차려 여러 차례 관료들을 대접해야 했고, 각종 벌칙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술상 비용은 모두 신임 관리의 집안에서 부담해야 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1) 벼슬의 후보자, 현재의 시보 또는 수습직원
2) 아랫 관원이 윗 관원을 맞이하는 예절
3) 계급이 낮은 벼슬아치



청렴 이야기

간단한(?) 허참례가 끝나면 본격적인 ‘면신례(免新禮)’가 시작됩니다. 물론 음식 대접과 벌칙을 동반합니다. 옷을 찢거나 매질하기, 흙탕물에서 구르기, 연못에 빠뜨리고 사모(모자)로 물고기 잡게 하기, 거울에 얼음물에 몸 담그기, 진흙과 오물을 손과 얼굴에 바르기, 관원의 직책과 이름이 틀리면 오물 끼얹기, 시커먼 벽을 손으로 문지르게 하고 그 손 씻은 물을 마시게 하기 등등 그 폐단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보름 넘게 숙직 근무를 서게 하여 잠을 못자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1514) 11월 15일 계유 1번째 기사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최숙생(崔淑生)·지평(持平) 소세량(蘇世良)이 전의 일을 논계하고, 최숙생이 또 아뢰기를,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이 분관(分館)되면 반드시 허참례(許參禮)와 면신례(免新禮)를 해야 하는데, 정옹(鄭膺)은 이예를 행하지 않고서 갑자기 홍문관 정자로 임명되었으니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사관(四館)⁴⁾의 옛 풍속은 비용만 허비하는 외람된 일로서 유폐(流弊)가 습속을 이루어 치화(治化)를 크게 손상시켰으니 간관된 사람은 마땅히 혁파(革罷)하기를 청해야 할 것인데도 최숙생이 이와 같이 외람되게 아뢰었으니, 번세(煩細)한 것만 살피고 대간의 대체는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간관(諫官)이라 함은, 임금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도록 권하고, 관료들의 비행을 감찰하여 고발하는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관의 우두머리인 대사관의 직책에 있는 자가 오히려 허참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관료를 관직에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이에 사관도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실록에 기재하였습니다.

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1538) 8월 17일 정사 2번째 기사

훈련원 참군(訓鍊院參軍) 이종(李琮)은 모든 신래(新來)가 면신례(免新禮)를 할 때면 친히 그집에 이르러

“내가 근일 거관(去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찰(監察)이 될 것인데 면신에 쓸 물품을 미리 비축하여 두고자 한다. 그대는 반드시 면신에 쓸 물품을 많이 준비하였을 것이니, 나에게 나눠준다면 그대의 면신례도 또한 쉽게 하도록 하겠다.”

고 하는데, 신래들이 거의 다 두려워하여 나눠줍니다. 또 지난 6월의 도목(都目)의 천장(薦狀)을 쓸 때에 권지 봉사(權知奉事) 윤사상(尹思商)에게 많은 뇌물을 받고, 당상(堂上)의 하명이라고 거짓 일컬으면서 드디어 사상을 천거하였으니 비루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치죄하소서.

‘이종’이라는 사람이 다른 신입관료에게 “내가 곧 감찰직에 임명될 것이니 면신례에 물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에게 면신례에 쓸 물품을 준다면 앞으로 있을 면신례를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주겠다”라며 대놓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왕이나 고위 관료들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없애라는 명령을 계속 내렸으나, 신하들은 이것도 관행이라며 대놓고 버티기도 하는 등 저항이 이어져서 사실상 조선 말까지 면신례는 남아있었고, 오히려 확대되어 나중에는 중인이나 노비들 사이에서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1699) 11월 22일 병진 1번째 기사

헌부(憲府)에서 계청(啓請)하기를,
“각 군문(軍門)에 신직하여 군졸들에 면신례(免新禮)라고 일컬으면서 신군졸(新軍卒)을 학대하여 주식(酒食)을 요구하고 전포(錢布)를 받아내는 폐단을 금단(禁斷)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면신례의 범위가 하급 군졸들에게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1775) 7월 1일 병오 4번째 기사

승문원 관원을 모두 삭직(削職)시키라고 명하였는데, 황택인(黃宅仁)을 준점(準點)하여 면신(免新)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관(四館)의 하나로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중요 관청입니다. 영조의 왕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청 하나에 재직하는 관료 전원을 면신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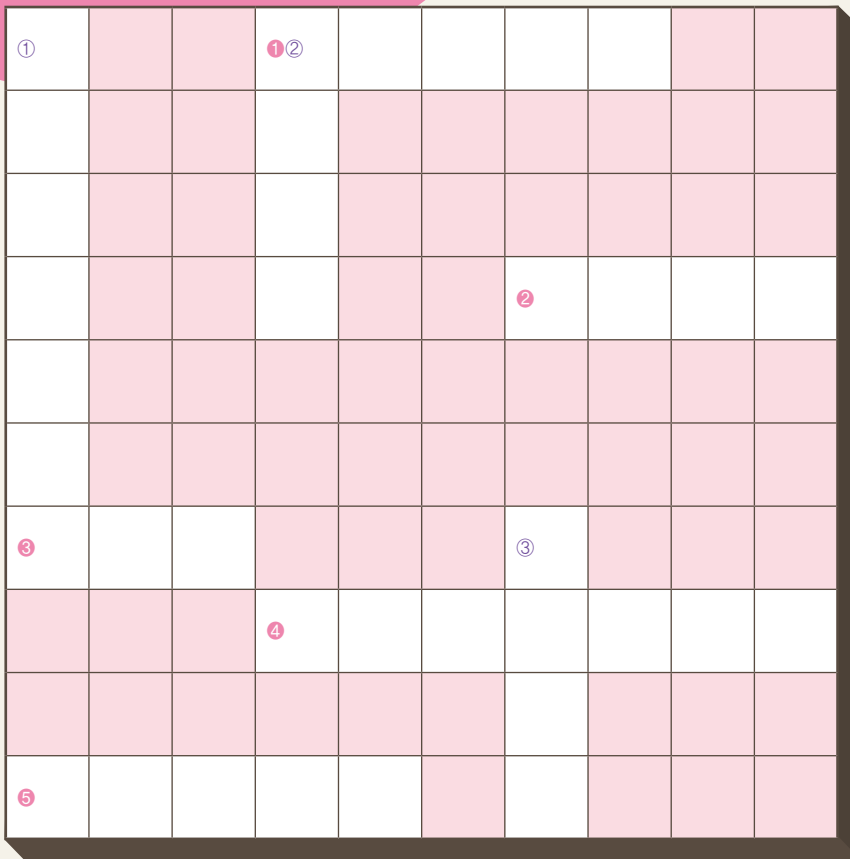
조선시대 면신례 관행을 살펴보면 과거 공직사회에 만연하였던 ‘시보떡’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면신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시보떡 문화가 근절되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시보해제 공무원에게 축하바구니, 축하엽서, 결재도장과 같이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폐단이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쓸데없는 허비와 야비한 곤욕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다, 몸이 상하게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거나 하는 폐해는 또한 큰일이다. 이 폐단이 어찌 우연히 생긴 것이겠는가. 단지 한때의 금단만으로는 통렬하게 고칠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이 일을 가지고 따로 승전(왕의 뜻)을 받들라” (중종실록 97권, 중종 36년(1541) 12월 10일 신유 1번째 기사)

4)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을 통칭

가로세로 청렴 낱말 퀴즈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정호



가로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약칭
- 2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행위를 뿌리째 없애자는 의미의 단어
- 3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조직
- 4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5 법무부는 청렴정책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직렬·직급·연령·성별로 구성된 ○○○○를 운영중이다.

세로

- 1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명칭
- 2 법무부에서는 자율적인 반부패·청렴분위기 조성 과 청렴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달 첫째주 월요일을 '○○○○'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수 있는 제도

정답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부		정	청	금	수	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고문 또는 코너 신설 등 '법무부 청렴알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allofyeon@korea.kr)
우편(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문의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뉴스레터 담당자
(02-2110-3279)